스위스 하이킹 스토리.

자연의 품에 안겨 사는 스위스 사람들의 이야기

포도 넝쿨에서 폭포까지 이어지는 트레일에서 포도밭을 가꾸는 청년
알프스 품에서 염소를 돌보고 치즈를 만드는 13 살 꼬마 아이
알프스 산 한복판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산장지기 부부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 5,000 번이나 같은 산을 오른 사나이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 가까운 미래의 여행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지금은 꿈꾸고, 여행은 나중에(Dream Now – travel later)"라는 영상 캠페인을 진행하며 산으로, 들판으로, 호수로,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여행자의 바램을 위로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의 여행 방법 중 하나로 스위스정부관광청은 하이킹을 소개했다. 꿈꾸던 여행이 가능해지면, 그동안 소원했던 가까운 이들과 소통하는데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 걷기에 스위스만 한 여행지가 없다는 것이다.

하이킹은 스위스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다. 세계의 많은 여행자도 하이킹을 위해 스위스를 찾고 있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9 년 여름, '다시, 자연의 품으로.'라는 주제하에 '하이킹' 캠페인을 론칭했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스위스에서 하이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와 코스를 지속해서 소개해 오고 있다.

스위스의 하이킹에는 자연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람들의 다채로운 면모도 녹아있다. 자연의 품속을 거닐며 스위스 사람들이 이어오고 있는 문화와 로컬들을 만나보는 즐거움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 준다. 그들이 전하는 하이킹 스토리를 소개한다.

1. 스위스 북부 포도밭 하이킹

포도 넝쿨에서 라인(Rhine) 폭포까지, 그리고 굽이치는 언덕을 향해
샤프하우저란트(Schaffhauserland)를 걸으며 와인 문화에 흠뻑 취해보는 하이킹

스위스 북부의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주변은 포도밭으로 가득하다. 초록 포도 넝쿨 사이를 지나, 빛나는 노란 들판을 건너, 빽빽한 숲이 들어선 언덕 너머 라인 폭포의 굉음이 들려올 때까지 하이킹을 하다 보면 샤프하우저란트의 풍경에 감탄이 나온다. 하이킹 중에 와인 셀러 한 군데를 들러 시음도 해볼 수 있다.

라인강과 유라(Jura) 산맥 숲의 풍경이 펼쳐지는 샤프하우저란트에는 수 세기에 걸쳐 와인을 생산해 오고 있다. 와인 생산 마을, 할라우(Hallau)/오버할라우(Oberhallau)에서 포도 경작에 할애하고 있는 총면적은 200 헥타아르로, 60 여만 평 정도다.

산속에 자리한 생모리츠(St. Moritz) 교회가 스위스 독어권 최대의 와인 생산지, 할라우 마을을 내려다본다. 포도밭 언덕 여러 개가 교회 주변으로 반원을 형성하며 둘러싸고 있다. 순례자들에게 인기 목적지였던 이곳에서 이제 교회는 장거리 하이킹의 출발점이 되어주고 있다.

포도 넝쿨 가득한 언덕에는 한여름의 고요가 내려앉았다. 포도는 짙은 초록빛을 발하고, 눈에 띄는 농부 몇은 가지치기에 여념이 없다. 그중 한 명이 루카스 브린골프(Lukas Bringolf)다. 할라우의 와이너리에서 3 년간 일해왔으며, 자신 소유의 와인도 직접 생산하고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피노 누아(Pinot Noir)라고 더 잘 알려진 블라우부르군더(Blauburgunder)가 이 포도밭의 제왕이다. 샤프하우젠 포도 경작의 70%가 이 블라우부르군더 품종이다.

할라우는 와인 러버들에게 천국이다. “래브휘위슬리(Räbhüüsli)”라 불리는 포도밭 오두막이 있다. 루카스와 네 명의 다른 와인 생산자 가족들이 여름 동안 돌아가며 주말마다 지키는 오두막이다. 하이커들은 아치를 타고 자라는 널찍한 나뭇잎이 만들어 내는 그늘에서 목을 축인다. 훌륭한 와인 한 모금과 함께 맛있는 로컬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인기다.

식사를 즐긴 뒤 샤프하우저란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향하는 오르막”으로 하이킹을 떠난다. 하이킹 내내 목적지가 끊임없이 시야에 들어온다. 매혹적인 언덕배기들이 지평선 너머로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바로, 샤프하우저 란덴(Schaffhauser Randen)이다.

이 언덕들은 계곡 위 500m 에 형성되어 있으나, 정상의 뷰를 즐기기 위해서는 꽤나 공을 들여야 한다. 어찔한 트레일을 오르고, 광활한 숲을 건너야 한다. 나무와 덤불 뒤에 숨어있는 지블링어 란덴투름(Siblinger Randenturm) 타워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오는데, 독특한 건축 구조물이 눈에 띈다.

해발고도 790m 인 타워의 꼭대기까지 이어진 99 개의 계단을 오르고 나면 그림 엽서 같은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는데, 다채로운 색깔의 조각보를 이어놓은 듯한 들판과 밭, 그 속 곳곳에 자리한 정겨운 마을의 풍경이 아름답다. 이 풍경을 품은 지역이 2018 년 1 월 이래, 샤프하우젠 지역 자연 공원에 속하게 되었다.

이 칸톤의 동맥과도 같은 라인강은 샤프하우저란트를 정의하는 요소다. 샤프하우젠(Schaffhausen)까지 이어지는 강둑을 따라 걷다 보면 이 지역 특유의 납작한 보트, “바이들링에(Weidlinge)”가 물결을 따라 넘실대는 풍경을 목격할 수 있다. 역사가 유구한 마을, 샤프하우젠이 점차 가까워진다.

마지막 빙하 시대에서 인사를 보낸다. 라인 폭포의 천둥 같은 굉음이 점차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이 느껴진다. 샤프하우저란트 지역 내 모든 하이킹 코스의 보석 같은 장관이다.

15,000 년 전에 형성된 폭포수가 굉음을 울리며 23m 아래로 곤두박질친다.

클레트가우(Klettgau)-라인(Rhein) 트레일은 와인 생산 마을, 할라우에서 파노라마 트레일을 따라 광활한 숲을 지나 언덕이 이어지는 란덴까지 이어진다. 여기에서 두 번째 구간을 이어갈 수 있는데, 지블링어 란덴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샤프하우젠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잠시 하이킹 구간을 벗어나 라인강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가 아름다운 샤프하우젠 구시가지를 둘러보아도 좋다. 그리고 노이하우젠(Neuhausen)에 자리한 라인 폭포를 찾아보면 좋다.

2 일
할라우에서 샤프하우젠까지 이어지는 하이킹 소요 시간

46km
클레트가우-라인 트레일의 총 코스 길이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1,400m
총 오르막

2. 베른과 루체른 근교의 목초지 하이킹
베른(Bern)의 염소 지기 목동, 아드리안(Adrian)
간트리쉬 자연 공원(Gantrisch Nature Park)의 아드리안을 만나러 가는 하이킹

알프 비레(Alp Bire)는 간트리쉬 자연 공원 한복판, 베르네제(Bernese) 알프스 전지대 1,640m 에 자리해 있다. 간트리쉬 자연 공원은 베른(Bern), 툰(Thun), 프리부르(Fribourg) 세 도시가 이루는 삼각형 안에 있다. 아이와 함께 하거나, 쉬운 하이킹을 원한다면 꼭 한 번 찾아볼 만한 하이킹 트레일이 여기에 있다.

이 알프 비레 목초지에 고작 13 살밖에 안된, 목동 아드리안 매더(Adrian Mäder)가 살고 있다. 매년 여름 방학마다 아드리안과 그의 부모는 간트리쉬 자연 공원에 있는 알프 비레(Alp Bire) 초원에서 맛있는 염소 치즈를 만든다. 알프 비레후벨(Alp Birehubel) 순환 하이킹을 출발하는 이라면 아드리안의 농장에 잠시 들러 스낵 바에서 직접 치즈를 맛볼 수 있다.

아드리안은 어떻게 염소를 돌보게 되었을까?
아드리안이 더 어렸을 때 일이다. 아드리안은 누나한테 여섯 마리의 염소를 샀다. 누나한테는 겨우 CHF 5 밖에 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매매가 성사되었다. 누나는 곧 학교를 시작할 나이였고, 더 이상 염소를 돌보기 원치 않았던 터였다. 아드리안에게는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다. 지금까지 아드리안은 그의 염소를 정성껏 돌본다. 아드리안이 소유한 염소는 이제 총 13 마리가 되었다. 아드리안은 아버지와 함께 총 86 마리의 염소를 돌본다. 아드리안 소유의 13 마리와, 다른 농부들이 소유한 73 마리로, 이 지역 농부들이 자신 소유의 염소를 여름 동안 알프 비레에 맡긴 것이다.

아드리안은 염소를 몰고 외양간으로 향한다.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아드리안이 염소젖을 짠다. 오늘 짠 우유의 양이 상당하다. 알프스의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말이다. 아드리안은 초원에 있을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엄마를 도와 치즈를 만든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아드리안은 그 무거운 우유 통을 들어 식당으로 옮긴 다음, 장작불 위에 올려진 대형 구리 냄비에 쏟아붓는다. 약 120 리터의 우유가 들어가는 냄비로, 약 12kg 의 치즈를 만들 수 있다. 우유가 37°C 로 데워지면 면보를 사용해 응고된 우유를 힘껏 들어 올리고, 틀에 넣어 눌러 준다. 구멍이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눌러 주어야 한다.

24 시간이 지나면 아드리안은 치즈를 틀에서 빼내어 지하 창고로 내려간다. 창고에서 치즈에 소금물을 칠한다. 갓 만든 염소 치즈는 무척 보드랍고, 풍미가 가볍다. 아드리안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다. 더 숙성된 치즈를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치즈를 더 오래 보관하는데, 그러려면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표면을 닦고 소금물 칠을 해 주어야 한다. 4 주 정도가 지나면 치즈의 수분이 빠지고, 꽤 강한 풍미가 생겨난다. 아드리안은 매일매일 염소 치즈 한 조각을 음미한다. 그저 행복할 뿐이다.

“가끔 치즈 창고로 내려가, 치즈 한 조각을 훔칠 때가 있어요.” 아드리안이 눈웃음을 치며 고백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가문의 전통이다. 매더 가문은 두 세대에 걸쳐 알프스 염소 치즈를 만들고, 판매해 왔다. 이들은 알프스에 여름이 찾아오는 6 월 중순부터 9 월 중순까지, 배고프고 목마른 하이커를 반갑게 맞이하며 스낵바를 운영한다. 가장 바쁜 일요일이면 아드리안이 엄마를 돕는데, 자신이 직접 만든 치즈를 손님들이 맛보고 좋아해 주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8 월 중순경 여름방학이 끝나면, 아드리안은 계곡 아래로 돌아가 학교에 가야 한다. 아드리안을 슬프게 만드는 일로, 9 월 중순까지 그의 동물들은 이곳 알프스 초원에 더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대신 염소와 소 생각에 여념 없을 때가 종종 있다. 다행히 주말이면 알프스 초원과 동물들에게 돌아가 함께 뛰어놀다가 아이들을 그저 지긋이 바라볼 수 있다. 언젠가는 부모님의 농장을 물려받을 날이 올 것을 확신하는 아드리안이다. 바라건대, 아드리안은 20 마리의 염소를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겨울에도 계곡 아래에서 치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드리안을 찾아보려면 알프 비레후벨 순환 하이킹 트레일을 따라 알프 비레 초원과 이곳의 스낵바에 찾아갈 수 있다. 포스트 버스 정류장인 “구르니겔(Gurnigel), 간트리쉬휘테(Gantrischhütte)”에서 시작해 오르막을 따라 오베렌 간트리쉬휘테(Oberen Gantrischhütte) 오두막까지 간 뒤, 완만한 내리막을 따라가면 그림 같은 호수, 간트리쉬젤리(Gantrischseeli)가 나타난다. 초록 들판과 높다란 베르네제 전지대 풍경에 둘러싸여 있는 호수로, 하이커들이 잠시 멈춰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휴식을 취한 뒤, 앞으로 나아가 오르막에 접어든다. 몇 미터만 올라가면 매더 가족들의 방목 소 떼가 눈에 띈다. 곧 알프 비레가 등장한다.

2.3km
가족 단위에도 적합한 알프 비레후벨 순환 하이킹의 총 길이

1-2 시간
그림 같은 간트리쉬 자연 공원을 가로질러 하이킹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300m
아드리안과 그의 염소들도 쉽게 오르는 오르막 구간

3. 세상과 동떨어진 산장으로 향하는 하이킹

산을 내 집처럼
투르트만(Turtmann) 산장과 부부 산장지기, 막달레나(Magdalena) 및 프레디 처리그(Fredy Tscherrig)를 만나러 가는 하이킹

투르트만 산장은 발레 알프스 한복판, 태고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투르트만 계곡 끝자락에 있다. 발레(Valais) 주 산속 거칠고 울퉁불퉁한 지형에 자리한 아늑하고 편안한 투르트만 오두막이 있다.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산장이다. 투르트만 산장은 1928 년에 지어졌다. 정기적인 보수를 통해 관리되다가 2000 년에 증축되어, 지금은 침대 수가 74 개다. 웅장한 투르트만 빙하의 뷰가 한눈에 들어오고, 비스호른(Bishorn), 바르반트(Barrwand), 디아블론(Diablon)을 포함한 대단한 산봉우리가 솟아올라 있다.

웅장한 산속, 해발고도 2,519m 에 자리한 이 오두막은 막달레나와 프레디 처리가 부부가 지키고 있는데, 하이커와 등반가들에게 인기다. 시간에 상관없이 프레디와 막달레나는 손님들을 돌본다. 산장을 지나는 하이커와 등반가들을 맞이한 지 벌써 23 년째다. 9 시부터 5 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이 절대 아닌 이곳에서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 4 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위해 보온병에 티를 담는다.

산장지기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일까? 하이커들이 무더위에 땀 흘리며 산장에 도착해, 시원한 맥주나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주문할 때다. 투르트만 산장에는 전기 공급이 일정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항상 차가운 음료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산장에서 일하는 것은 무척이나 다채롭다. 예약을 받고, 장보기를 계획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를 굽는다. 특히 이곳의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는 명물이다. 프레디와 막달레나, 그리고 이곳의 스태프들은 대단한 원팀이다. 모두가 자신이 맡은 일을 즐기는데, 벌써 수년째 이 일이 재밌기만 하다.

산장지기로서의 업무 외에, 프레디 처리그는 산악 가이드이자, 산장 주변으로 향하는 등반 여정, 빙하 하이킹에 가이드로도 일한다.

옆에 자리한 해발고도 4,153m 의 비스호른은 난이도가 쉬운 편인 4 천 미터급 봉우리 중 하나로 꼽힌다. 산악 가이드와 함께라면 비교적 능숙하지 못한 등반가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산악 하이커들이 대안으로 찾는 봉우리가 바르호른(Barrhorn)인데, 유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중 하나로, 해발고도 3,610m 높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산악 등반 장비 없이도 오를 수 있다. 투르트만 산장에서 하이커들은 도전적이지만 인상적인 하루 일정의 왕복 등반에 나선다. 산악 가이드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더라도 산봉우리를 정복할 수 있다.

투르트만 빙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다. 투르트만 빙하에서 끊임없이 울려오는 속삭임이 발길을 이끈다. 투르트만 산장은 겨울에도 문을 여는데, 대부분은 스키 투어러를 맞이한다. 겨울이면 이 위는 완전한 고요에 빠졌었다고 산장지기 부부가 설명한다. 빙하가 온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일 년 내내 밤낮으로 작은 물줄기와 폭포의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듯 말이다. 빙하는 이미 무척 감소했다. 프레디가 어렸을 적, 빙하는 투르트만 호수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기억한다.

투르트만 산장 주변은 하이킹 천국이다. 산장은 하나지만, 선택할 수 있는 트레일은 무궁무진하다. 산장까지의 오르막은 쉬운 편이고, 투르트만 계곡을 가로지르는 하이킹과 접목할 수도 있다. 산장을 찾아가는 제일 빠른 길은 보르더 샌툼(Vorder Sänntum) 주차장에서 시작하는 두 시간짜리 하이킹 코스다.

해발고도 3,610m
투르트만 산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하이킹 목적지 중 하나인 위서스 바르호른(Üssers Barrhorn)의 높이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7-8 시간
투르트만 산장에서 바르호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왕복 여정에 필요한 소요 시간이다.

9km, 그리고 1,100m
편도 하이킹 코스는 4.5km 길이에, 총 오르막 1,100m 가 이어진다.

2-3 일
투르트만 계곡을 가로지르고, 바르호른에 오르는데 필요한 이상적인 소요 시간이다.

4. 지그재그 커브 길이 재미있는 하이킹

미텐맨(The Mythen Man)
정상의 남자 아르민 셸베르트(Armin Schelbert)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이킹

그로스 미텐은 중부 스위스에 있는 산이다. 루체른(Luzern)에서 멀지 않은 슈비츠(Schwyz)와 아인지델른(Einsiedeln) 사이에 위치해 있다. 클라인 미텐(Klein Mythen), 하겐슈피츠(Haggenspitz)와 함께 미텐 산맥을 이룬다. 그로스 미텐(Gross Mythen) 산으로 향하는 미텐 트레일은 3km 거리도 채 안 되는데, 홀체그(Holzegg)부터 정상까지 46 번의 구불구불한 커브 길로 이어져 있다. 500m 의 오르막이 있다. 알프스 전지대에 있는 그로스 미텐은 홀로 우뚝 솟아있어 알프스와 루체른 호수 근처의 마을과 도시 풍경을 한눈에 보여 준다.

아르민 셸베르트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산, 그로스 미텐을 하루에도 몇 번씩, 20 년째 오르내리며 하이킹을 해 왔다. 한평생 5,000 번도 넘게 오른 산이다. 그 누구보다 많이 올랐음에 틀림없다. 지루하지 않냐 물으니 그의 대답은 단호하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이 산과 1,898m 위에서 바라보는 자연, 그리고 황홀한 전망에 매료되지 않은 적이 없단다. 정상에서 만나는 마법 같은 일출도 빼놓을 수 없다.

아르민 셸베르트는 손질이 잘 된 수염에 새하얀 백발, 적당히 탄 얼굴을 가진 진정한 산악인이자, 은퇴한 현장 관리자다. 74 세의 그는 그로스 미텐에서 멀지 않은 쉰델레기(Schindellegi)에서 자랐다. 지금은 매일같이 열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주중에는 산 발치에서 살고 있다.

아르민은 동네에서도 미텐과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 유명하다.
사춘기 시절 그와 그의 친구들은 종종 쉰델레기부터 미텐 지역까지 자전거를 타곤 했었다. 거기에서 여러 봉우리로 하이킹을 즐겼다. 결정적인 계기는 1999 년 동료에 의해 만들어졌다. 아인지델른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던 동료는 오후 쉬는 시간 동안 항상 산에서 하이킹하면서 아르민에게 정상에 오르는 맛을 알려 줬다. 그 후로 아르민은 그로스 미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며 등반 횟수를 기록해 오고 있다.

46 번의 지그재그가 만들어 내는 즐거운 하이킹을 아르민은 매일 반복한다.
이른 아침, 세상이 아직도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아르민은 머리 손전등을 쓰고 하이킹 폴을 집어 들고 그로스 미텐을 향해 오른다. 40 분이면 정상에 오르는 아르민에 반해 일반 하이커들은 그 두 배 이상이 소요될 트레일이다. 아르민과 미텐 협회 친구들은 이 커브 길에 숫자를 매겨서, 하이커들이 응급 상황에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짝수는 좌회전 길이고, 홀수는 우회전 길이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아르민은 특히 새벽녘에 하이킹하는 것을 좋아한다. 새날이 서서히 다가오는 이 은밀한 시간에 산과 자연을 더욱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다. 오르는 길에 샤모아를 자주 만난다. 그로스 미텐에서는 사냥이 금지되어 있고 야생 동물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킹 중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다. 제일 처음 산봉우리에 도착하면 그는 오두막지기 프랑크(Frank)를 돕는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고 다른 하이커들이 정상에 도착하기 시작한다. 머리 손전등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떠오르는 해는 이제 하늘을 환히 비춘다.

미텐에는 친구들과 조력자도 많다. 하이커들이 첫 햇살을 즐기고 있을 때, 아르민은 음료 서빙을 돕는다. 정상에 자리한 오두막 스태프들과 잘 어울리는 그는 함께 근사한 팀을 이룬다. 장상 레스토랑은 5 월부터 10 월까지 일출부터 일몰까지 문을 연다. 그로스 미텐은 인기 높은 하이킹 목적지이고, 그래서 산에서도 할 것이 많다. 미텐 협회 친구들은 이런 임무를 맡아 정상 레스토랑과 미텐 트레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아르민은 '미텐 우체부'로도 불린다.
완벽한 정상을 만들어 주는데 기여하는 것 중에는 전설적인 미텐 너트 혹은 아몬드 크로아상이 있다. 계절마다 1 만 2 천 개 정도가 팔려나가는 인기 품목이다. 예전에는 아르민이 손수 이 크로아상을 실어 날랐지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때였다. 지금은 헬리콥터로 대량의 배송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아르민은 여전히 조금씩은 직접 나르기 좋아한다. 오두막 스태프들이 보내는 편지나 전 세계 관광객들이 정상에서 보내는 알록달록한 엽서도 그가 없으면 배달되지 않을 테다. 진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상에 위치한 우체통에 엽서를 넣으면 세계 어디로든 우편물을 부칠 수 있다.

정상의 일지도 중요하다.
아르민이 하산하기 전, 정상에 있는 일지를 넘겨, 오늘 등반 정보를 기록한다. 올해만도 벌써 298 번째 등정이다. 목표가 300 회였으므로, 이제 두 번만 더 오르면 된다. 지금까지 그가 세운 기록은 해발고도 총 2 백 50 만 미터 등반에 미텐 등반 5,000 회가 된다. 이 산을 사랑하는 정도로 봐서 앞으로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

약 1 시간 20 분
홀체그(Holzegg)에서 정상까지 소요되는 하이킹 시간이다.

2,400m
정상까지의 하이킹해야 하는 거리다.

해발고도 1,898m
슈비츠(Schwyz)를 내려다보는 이 산의 높이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